전남 서남권 산단 대개조, 조선·해상풍력 도약 기틀

전국 산단 대개조 공모 선정
대불·삼호·화원·삽진 4곳
2025년까지 3619억 투입
경제회복 새로운 전기 마련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추진한 '2022년 전국 산단 대개조' 공모에서 '전남 서남권 산단 대개조 사업'이 최종 선정됐다. 2020년 광양만권 산단대개조 사업(사업비 609억원) 선정에 이어 전남도내 서부권에 자리한 영암 대불국가산단·삼호산단, 해남 화원산단, 목포 삽진산단 등 4개 산단에도 2023년부터 3년간 3619억원이 투입돼 첨단산단으로 탈바꿈하게 된다. 전남도는 이들 산단을 친환경 조선과 해상풍력 기자재 산업 배후기지로 육성할 방침이다.

28일 전남도에 따르면 산자부 등은 조선산업과 관련해 산단 주변에 친환경 선박 연구 인프라가 풍부하고, 대불산단을 중심으로 관련 산단이 모여 있어 산단 간 연계를 통한 발전 가능성을 높이 평가했다. 해상풍력에 대해서는 세계 최대 8.2GW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 등과 연계한 풍력산업 기자재생산 배후지역으로서 산업 확장 가능성을 비롯해 업종 다각화, 조선·해상풍력 간 산업인프라 공유 가능 등을 탁월한 점으로 꼽았다.

이들 전남 서부권 4개 산단에 대해 2023년부터 3년간 25개 사업을 추진, 지능형 디지털 혁신산단으로 전환하고 친환경 조선 및 해상풍력 특화산단으로 고도화한다. 저탄소 그린산단 조성에도 힘쓴다.

지능형 디지털 혁신산단 전환을 위해선 스마트공장 고도화 지원, 스마트 공동물류 플랫폼 구축 등 스마트 제조 기반의 공정혁신과 스마트 물류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을 중점 추진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산업을 고도화한다.

친환경 조선 및 해상풍력 특화산단으로 고도화하기 위해선 중소형 선박 고속 엔진 스마트 수명·진단 관리지원 체계 구축, 해상풍력 하부구조물 설계 및 생산 특화기술 개발, 해상풍력 유지보수 전문교육센터 구축 등을 추진, 산업 육성과 기술경쟁력 확보에 초점을 맞춘다.

쾌적하고 안전한 저탄소 그린산단 조성을 위해선 대불산단 재생계획 수립, 산재예방 통합지원센터 구축 등을 추진한다. 에너지 자급자족 인프라 구축, 에너지 절감 스마트 에너지플랫폼 구축 등 사업으로 산단 에너지 인프라를 확충한다. 전남도는 서남권 산단 대개조를 통해 2025년까지 생산액 9조원, 일자리 2만5000명, 사업 다각화 기업 70개사, 산업재해 50% 감축을 달성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전남도는 목포시·영암군·해남군과 한국산업단지공단, 관련 혁신기관, 입주기업, 전문가가 참여하는 '산단 대개조 추진단'을 구성하고, 기관별로 책임 관리제를 시행해 효율적인 사업 관리가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서남권은 조선산업 관련 생산액이 전남 전체 산단의 5%인데 반해 고용은 25%나 차지하는 지역 일자리 창출 핵심지역"이라며 "지난해부터 글로벌 선박 시장의 회복으로 수주 물량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으로 서남권 핵심 산업인 조선 및 해상풍력이 재도약하는 기반을 확실히 마련, 서남권 지역경제의 심장이 힘차게 다시 뛰도록 만들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농촌일손돕기 나선 농협 임직원 농협광주지역본부와 광주시 관내14개 농협 임직원 40여명이 일손이 부족한 농가를 돕기 위해 28일 오후 광주시 광산구 안청동 농가를 방문, 볍씨 모판 작업을 하고 있다. /나명주기자mjna@kwangju.co.kr

전남도, 7월 공공 배달앱 출시한다

민간이 개발 운영, 도는 홍보
가맹 중개수수료 1.5%
지역사랑상품권 사용

전남도도 공공 배달앱을 출시한다. 사실상 '배달의 민족'(이하 배민)이 제패한 배달 앱 시장에서 대항마 역할을 하며 지역 자영업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지 주목된다.

전남도가 오는 7월 출시를 앞두고 있는 공공배달앱은 개발·운영을 민간업체가 맡고 활성화를 위한 홍보마케팅을 전남도와 시·군이 책임지는 형태로 운영된다. 지자체 예산투입을 최소화하면서 민간 기술력과 문제 해결능력 등을 활용해 소비자 관심을 끌어보겠다는 의도지만 배민 등 민간 배달앱의 아성을 넘을 지는 미지수다.

운영 사업자는 서울, 경기 성남·시흥, 세종, 충남 천안, 충북, 경북, 경남 김해 등에서 공공배달앱을 개발해 운영중으로, 시·군과 한국외식업중앙회 전남도지회, 소상공인연합회의 협조를 받아 오는 5~6월 중 가맹점을 모집할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전남도 내 민간 배달앱 가맹점은 목포·나주·여수·순천·광양 등 5개 시에만 82%가 몰려있다.

가맹한 소상공인의 경우 중개수수료 1.5%만 내면 된다. 가입비와 광고료를 내지 않고 지역사랑상품권을 배달앱으로도 쓸 수 있다는 게 전남도가 꼽는 장점이다.

현재 민간 배달앱을 통해 2만 원짜리 음식을 주문할 경우 가맹점은 1360원(6.8%)~3000원(15%)의 중개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는 반면, 공공배달앱에서는 중개수수료로 300원(1.5%)만 부담하게 돼 건당 최대 2700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이다.

관건은 배민에 견줘 싼 수수료로 등록업체를 모으는 것 외에 앱을 이용할 소비자의 호응을 끌어낼 수 있느냐 여부다.

저렴한 수수료를 내걸고 나왔던 여러 공공앱도 편리함이나 혜택의 측면에서 배민 등 기존 서비스 소비자들의 외면을 받았다는 점에서 소비자들의 선택할 차별화가 필요하다는 게 일반적 시각이다.

전남도는 공공배달앱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 불만 제로 고객 콜센터 운영 및 홍보·마케팅을 지원하는 한편, 전통시장 장보기, 생활용품 배달, 로컬푸드, 이·미용실 예약, 세탁소, 관광, 구인·구직, 숙박업소 등 전남의 특화된 지역자원을 연계한 생활 SOC 배달앱으로 기능을 넓힌다는 구상이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전남 어촌수산물 사이트 '바이씨' 전국화 시동

경남어촌특화센터와 수산물 입점 협약 체결

전남지역 어촌 수산물 직거래 사이트 '바이씨'가 전국화의 시동을 걸었다. '바이씨'는 전남지역 우수 어촌계가 생산한 수산물을 온라인·모바일을 통해 현지 가격으로 받아볼 수 있는 수산물 직거래 통합 사이트로, 전남뿐 아니라 경남 어촌계 수산물도 입점하게 됐다. 전남도와 전남어촌특화지원센터(이하 전남센터)는 전국 각지의 어촌계가 가입할 수 있도록 사이트를 개방해 전국화에 나설 방침이다.

27일 전남도와 전남센터에 따르면 전남센터는 이날 오후 경남 거제 해금강 마을, 경남어촌특화지원센터(이하 경남센터)와 '바이씨' 입점을 위한 공동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에 따라 경남 거제 해금강 마을이 입점하게 돼 어민들은 자신들이 생산하는 수산물과 특산품(멸치, 다시마, 미역, 동백제품)을 직접 소포장해 배송하면서 소득을 높일 수 있게 됐고 도시민은 전남 뿐 아니라 경남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을 저렴하게 맛볼 수 있게 됐다.

경남센터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해금강 마을 주민들의 소포장 판매를 위해 박스, 스티커 공급 및 홍보, 이벤트 등을 적극 지원키로 했다. 전남센터도 거제 해금강 마을의 수산·특산물 매출 증대 방안을 마련해 협의하기로 했다.

바이씨는 전국 최초로 지난 2020년 11월부터 운영에 들어간 어촌계 수산물 직거래 사이트로, 전남의 우수어촌계 25개소가 입점해 각 어촌계에서 생산한 김·전복·바지락·피조개·굴 등 수산물을 온라인과 모바일로 판매하고 있다.

바이씨는 기존 개별 온·오프라인 거래에서 발생됐던 수수료 부담을 대폭 줄여 카드 수수료와 운영비 일부를 어촌계에서 부담하되 연말에 정산한 후 남은 비용을 전남센터가 마을 기금으로 기탁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시·군별로는 ▲여수(금봉·화태·안포·장지·직포·미포) 6곳 ▲진도(신기·가사·돌목·용호) 4곳 ▲장흥(이회진·장환·수문) 3곳 ▲고흥(신평·우두·금진) 3곳 ▲보성(군농·석간) 2곳 ▲강진(사초·봉황) 2곳 ▲해남(송호·임하) 2곳 ▲함평(석두) ▲순천(와온)▲완도(동고) 등이다.

최정기 전남도 해양수산국장은 "전남도와 전남센터가 바이씨를 통해 전남 어촌 직거래망을 통합한 데 이어, 경남 어촌계까지 입점하면서 전국의 수산물을 만나볼 수 있게 됐다"며 "어업인들은 소득을 높일 수 있고, 도시민들은 저렴하게 건강한 수산물을 맛볼 수 있는 바이씨를 더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광주시,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 본격 추진

5월부터 저소득층 대상 LED 조명사업 등
시설개선·에너지 나눔복지사업

광주시가 5월부터 저소득 취약계층 등 대상으로 LED조명, 연탄, 등유 등 다양한 에너지 복지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지원사업은 ▲시설개선사업(LED등 교체,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에너지 나눔 복지사업(에너지바우처, 연탄·등유 지원) 등으로 나눠 진행된다.

취약계층 LED등 교체 사업은 2014년부터 저소득층, 복지시설을 대상으로 그동안 1만230개소 169억원을 지원했으며, 올해는 총 704개소(저소득층 648, 복지시설 56), 사업비 9억 5000만원을 지원한다.

이번 사업 추진에 따라 전력효율 향상과 수명개선을 통해 전기 요금 절약 및 에너지 절감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또 광주시는 4100만원을 투자해 165개소를 대상으로 가스사고에 취약한 LPG고무호스를 금속배관, 퓨즈콕 등으로 교체 설치하는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을 실시하는 등 가스사고 사전 예방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사업대상은 모든 LPG용기 사용 일반가구다. 단 영업용, LPG배관망 예정가구, 도시가스전환(예정)가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가구당 개선비용은 총 25만원으로 지원금액은 20만원이며, 선정된 가구는 5만원만 자부담하면 된다.

저소득층 난방연료 지원사업은 관내 에너지 취약계층의 겨울철 난방비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연탄지원은 한 가구당 13만원씩 기초생활수급자 총 351가구, 사업비 4600만원, 등유지원은 한 가구당 15만 5000원씩 기초생활수급자 중 장애인, 독거노인 총 1170가구, 사업비 1억 8100만원을 지원한다.

권대혁 광주시 에너지산업과장은 "에너지는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 공공재"라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에너지 복지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에너지 취약계층이 충분한 에너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집중 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시, 장애인 정보 격차 해소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나서

광주시는 "장애인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해 정보통신 보조기기를 보급한다"고 28일 밝혔다. 정보통신 보조기기는 장애인들이 컴퓨터를 비롯한 각종 정보기기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작한 보조기기다.

대상은 광주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장애인이다. 장애 유형별로 독서확대기, 광학문자판독기, 화면낭독기, 특수키보드, 특수마우스, 터치모니터, 영상전화기, 음성증폭기, 언어훈련 소프트웨어 등 121종, 150대를 보급한다.

5월 2일부터 6월17일까지 서류를 갖춰 시 정보화담당관실로 우편 또는 방문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으로는 정보통신보조기기 홈페이지)https://www.at4u.or.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광주시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서류평가, 심층상담, 전문가심사를 거쳐 최종 보급대상자를 선정하고, 7월15일 시 홈페이지에 보급 대상을 발표할 예정이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2022년도 희망리턴패키지 경영개선·재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참여자모집

인테리어부터 인건비까지 한번에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경영개선을 통한 사업안정화 추진 또는 재창업 아이디어를 보유한
소상공인에 대하여 교육과 사업비를 패키지로 지원해드립니다.

사업설명 홈페이지

교육+멘토링+자금(최대 2천만원/자부담금 별도) 패키지지원

신청대상
① 사업자등록증 보유 소상공인 중 아래의 하나인 경우
- 전년대비 매출 20% 감소 또는 최근 3년 연속 감소 소상공인
- NICE 평가정보 개인신용점수(CB) 779점 미만 소상공인 ((구)신용등급 5등급 이하 수준)
② 사업공고일(2022.04.13) 기준 폐업을 하여 현재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소상공인

지원항목
① 교육 지원 : 경영개선, 재창업 교육 32H (수료 필수)
② 사업화 지원 : 최대 2천만원(인테리어, 마케팅 홍보, 제품개선, 온라인판로, 브랜드개발 등)
- 인테리어는 국고보조금 총액의 50% 초과 집행 불가
③ 멘토링 지원 : 전문가 상시 자문(최대 6개월)

사업비구성 예시 (정부지원 50% + 자부담 50%)
① 1인당 최대 4천만원
* 지원금 2천만원(50%)+자기부담금2천만원(50%)
* 자기부담금 2천만원 중 최대 1천4백만원은 대표자·직원 인건비, 시설, 설비, 임대료로 집행 가능(최대 70%)

신청기간 및 접수 2022년 4월 13일(수) ~ 5월 3일(화) 17:00 기한엄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hope.sbiz.or.kr)온라인 신청

사업문의
광주·전라남도/제주권 사업주관기관 (주)세종경영연구소
- 호남사무소: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중앙로 114 / 1545호
- 영남사무소: 대구광역시 동구 동대구로 425 / 3층
- 제주사무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북로 45 / 710호
- 담당자: 황성재 이사 / 류상현 대리 / 배지윤 대리
Tel. 070-5184-5593/5928, 062)385-0852 Fax. 053)281-0852

주최: 중소벤처기업부 전담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주관기관: 세종경영연구소